LOCAL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무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내달 4일까지 참여자 모집

무안군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상반기 대비 16명이 증원된 124명으로,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공공서비스 지원, 진료도우미 등 68개 사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역아동센터 학습과 돌봄도우미, 여성 원어민 강사 아동학습지원 등 15개 사업에 배치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다.

참여 자격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75세 미만의 무안군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다음달 25일 누리집을 통해 최종 참여자 명단을 공고할 예정이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장성, 삼서면 공중목욕장 준공 주민 건강 증진·소통 등 기대

장성군은 최근 삼서면 공중목욕장(삼서면 해삼로 1138)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전까지 삼서면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이 없었다. 목욕탕에 가려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해 불편이 따랐다.

군은 전남도에 공중목욕장 건립을 건의해 도비 포함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23년부터 현 위치에 건립을 시작해 이날 준공에 이르렀다.

공중목욕장 규모는 대지면적 1755㎡, 바닥면적 410㎡로 냉온탕, 사우나, 찜질방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용료는 어린이·어르신 3000원, 일반 3500원이며 매주 화·목·금요일에 운영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운영은 삼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았다. 이용 문의는 직통전화(061-394-0806)로 하면 된다.

김한종 군수는 "주민 건강 증진과 소통, 교류의 장소로 오래도록 사랑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

형형색색 물든 수국 길 거닐며 강진서 '힐링'

27~29일 강진 보은산 V랜드 공원서 '수국길 축제'
조형물 포토존 조성…물놀이장 등 즐길거리 다채

'제3회 강진 수국길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강진읍 보은산 V랜드 공원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

형형색색으로 물든 수국 길을 거닐며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제3회 강진 수국길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강진읍 보은산 V랜드 공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로 구성됐다.

우선 축제장은 형형색색의 수국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이 가득하다. 축제의 분위기에 맞는 경관이 조성돼 관광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한다.

수국꽃길, 우산 지붕, 캠핑 의자 및 테이블을 통해 행사장 곳곳에 자연 친화적인 쉼터들도 조성되며, 꽃터널, 쉬폰, 바람개비 등 아름다운 조형물을 통한 포토존도 다양하게 준비돼 관광객들의 관심과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더위를 날릴 대표적 프로그램은 V랜드 물놀이장이다. 축제 기간 동안 특별 개장되며,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다.

물총 서바이벌과 심신 힐링 프로그램인 황토 맨발길 걷기도 가족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마술공연, 솜사탕 퍼포먼스, 어린이 목공체험, 어린이 놀이 도서관 등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꽃꽂이 체험, 수국 하바리움 만들기 등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들로 기념품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며, 수국길 사진 인화, 수국 추억 만들기를 통해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도 있다.

축제 기간 동안 운영되는 수국길 음식관에서는 닭개장, 냉콩국수, 열무냉면, 숯불 돼지불고기 등 강진의 여름 제철 음식을 판매한다. 닭꼬치, 핫도그, 닭강정, 츄러스, 카페 음료 등 여러 가지 간식들을 축제장 푸드트럭에서 맛볼 수 있다.

이번 축제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먼저 27일 오후 4시 개최되는 개장 축하쇼에서는 장민호, 울랄라세션, 김영남 등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무대를 빛낸다.

28일에는 강진읍 보은산 기슭에 있는 천년고찰 고성사의 '제23회 고성사 산사음악회'를 기념해 왁스, 김용진, 다미 등이 무대에 오르고, 축제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김준수, 클레오, 조수한, 비스타 등 쟁쟁한 인지도의 가수들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만개한 수국이 가득한 수국길축제장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으면 한다"며 "수국길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화훼 1번지 강진군의 명성을 드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25~26일 국제학술포럼 개최
문화유산 보존 등 연구 공유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중 하나인 와형석조여래불.

화순군은 오는 25~26일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포럼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보존·관리를 주제로 문화유산 보존·관리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 당사자를 초청해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연구 동향을 공유한다.

25일에는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화순 운주사지 일원을 답사하고, 보존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26일에는 오후 1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2부에 걸쳐 진행되며, 5명의 국내외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1부에서는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현황과 가치'를 대주제로 하며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조성과 고려시대 불교미술, 운주사 석불석탑군 가치 확립을 위한 보존관리에 대한 발표가 있다.

2부에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현황과 전략'을 대주제로 인도 델리 후마윤 묘지 보존관리, 석조세계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등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천득염 전남대학교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이경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정광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명예교수, 엄기표 단국대학교 교수, 허권 몽골국제대학교 부총장, 서정호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관리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가치 증진과 보존·활용을 위해 다양한 기관, 전문가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완도해양치유센터, 파격 할인 이벤트

내달 18일까지… 기본 이용권 최대 60%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은 '2025 완도 방문의 해'와 여름철을 맞아 완도해양치유센터의 입장권을 최대 60% 할인하는 파격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벤트는 많은 이들이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다양한 데라피를 통해 일상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할인은 기본 프로그램 이용권 50장 구매 시 최대 60%, 프리미엄 프로그램 이용권 20장 구매 시 40%, 30장 이상 구매 시 50% 적용되며, 디럭스 프로그램은 30장 이상 구매 시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용권은 성수기 시즌을 고려해 다음달 18일까지 판매할 예정이며,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현장 판매한다.

공단은 할인율을 높인 만큼 장기 이용객 유입 및 개인·단체 이용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채빈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은 "할인권 판매는 해양치유 효과를 경험하고 해양치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단순한 관광이 아닌 건강 증진과 관광이 어우러진 힐링 콘텐츠인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해양치유센터는 해수, 해조류, 머드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국내 유일 해양치유 시설이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8만여명이 넘게 다녀가며 방문객들로부터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주관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